

공군사관학교 1학년 학생의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An Analysis of the Influence Factors on the Intention to Drop Out of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Academy's First Year Cadets

이 병 주 (Byeongjoo Lee)

공군사관학교 어문학과

이 태 원 (Taewon Lee)¹⁾

공군사관학교 수학과

ABSTRACT

In this stud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 to drop out of the Air Force Academy's first year cadets were explored. The survey was conducted by transforming the questionnaire of the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to reflect the specific context of the Academy. Total of 125 survey responses were received. Also, by utilizing SPSS 29.0, a verification of difference was conducted to see if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groups(Drop out intention group and Hope to continue attending school) in the intention to drop out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s well. As a result, the study first showe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background variable 'birth year, admission decision time', and 'education service satisfaction, career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was significant in the university experience variable. The 'relational variable' indicating the degree of

1) 교신저자: ltwon100@naver.com

alienation wa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career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and alienation of relationship'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intention to drop out. While 'career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decreased the intention to drop out, 'relational alienation' increased the intention. With reference to these research results, structural solutions to reduce the intention to drop out of military academies should be supported.

Key words : Republic of Korea Air Force Academy, College education, Dropout intention, Factor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주 제 어 : 공군사관학교, 대학 교육, 중도탈락의도, 요인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

I. 서론

대학교는 매년 한정된 입학정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입학생을 뽑는다. 최근 다양해진 대학 입학 전형만큼, 학생선발은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발된 학생들이 대학교 입학을 포기하거나, 입학 후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선발 과정부터 활용된 인력 및 비용이 낭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교뿐만 아니라 재입학 혹은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도 시간과 재화를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 고등교육기관은 ‘편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중도 탈락한 인원들을 보충할 수 있지만, 특수목적기관인 사관학교의 경우에는 ‘편입’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관학교는 학생을 선발한 이후 추가로 학생 확보를 할 수 없다. 사관학교 학생들의 자퇴율 증가는 현역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관학교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추세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다.

<표 1> 2018~2021년 공군사관학교 모집정원 및 현재 학생 수

연도	모집정원	경쟁률		2022년 학년	2022년 학생 수 (모집정원대비 감소 인원)			
2018	215명 (여 20명 내외)	남	34.8	4학년	195 (-20)	(-9.4%)	남	177
		여	101.7				여	18
2019	215명 (여 22명 내외)	남	40.6	3학년	188 (-27)	(-12.6%)	남	170
		여	120.2				여	18
2020	235명 (여 22명 내외)	남	25.1	2학년	208 (-27)	(-11.5%)	남	188
		여					여	20
2021	235명 (여 24명 내외)	남	17.5	1학년	189 (-46)	(-19.6%)	남	174
		여	48.1				여	15

최근 대한민국의 출산율 감소 및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많은 대학이 학생 모집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이 모집되지 않으면 결국 학교는 폐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관학교는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며, 각 군의 장교양성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갖고 설립되었기 때문에 학생 유치를 걱정하진 않는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사관학교 지원자 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쟁률을 살펴보면 정원 미달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입학정원의 15%

정도만 뽑기 때문에 남학생보다 경쟁률이 더 높다. 하지만 <표 1>을 보면 경쟁률이 무색할 정도로, 늘어난 입학정원에 비해 재학 중인 학생 수는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입학 후 학교를 나간 학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관학교는 다른 대학들과 다르게 학생 유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사관학교에 입학한 학생을 중도탈락시키지 않고 무사히 졸업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국회에서 먼저 제기되었다. 김민기 국방위원은 2020년에 “사관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퇴교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퇴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중부일보, 2020)라고 문제 제기하기도 했으며, 2021년 강대식 의원은 “육사 자퇴생 지난 4년간 60여명, 1학년 비율은 70% 최다”이며, 이는 “입시생 기회 박탈”(대구일보, 2021)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관학교 학생들의 중도탈락은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이며, 사관학교가 국가에 군인양성을 위탁받은 기관인 만큼, 사관학교 학생들의 중도탈락은 국가 방위력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표 2> 사관학교 입학 평가 항목 및 소요 기간

	1차 시험	2차 시험	최종 선발	임시입교
평가 항목	• 국어 • 영어 • 수학	• 신체검사 • 면접 • 체력검정		• 기초군사훈련
소요 기간	7월 (1일 소요)	9월~10월 (약 2개월)		1월~2월 (약 1개월)

사관생도 선발 과정이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도 사관생도의 중도탈락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과정에는 국가의 재정과 인력이 투입된다. 이 과정은 인재(人才)를 획득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약 3개월 이상의 선발 기간과 세 단계의 선발 절차를 통해 선발된 학생이 중도탈락한다면, 이는 투입된 국가의 재정과 인력이 낭비된 국가적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사관학교 지원은 타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할 시간을 포기하는 일이다. 사관학교의 입학 전형은 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점수를 바탕으로 대학 입학원서를 작성하는 일반대학교의 입학 전형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입학했던 학생이 학교를 자퇴하고 다시 다른 대학교에 입학한다면, 학생의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일이라

고 할 수 있다.

수험생은 사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7월부터 1차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1차 시험은 모든 사관학교가 공동으로 낸 문제로 실시되며, 이는 수능과 비슷한 유형이긴 하지만 별도의 사교육이 존재할 정도로 난이도 있는 시험이다. 게다가 2차 시험은 수능 전에 신체검사, 면접, 체력 검정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관학교 입학에 의욕을 갖지 않은 학생이 도전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구조이다. 즉 수능 공부할 시간을 포기하며 사관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므로 사관학교 입학시험은 분명한 목표를 가진 학생이 응시한다. 최종 선발된 학생은 바로 입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입교(假入校) 기간을 갖는다. 1, 2차 시험을 응시한 다음 연도 1~2월에 약 4주 정도 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이 훈련까지 통과한 학생에게만 사관학교 입학이 허가된다.

임시입교(가입교) 기간에 진행되는 군사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입학정원 기준 매년 약 10~15% 정도다. 군사훈련을 포기한 학생들이 있으면, 예비합격자에게 입교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사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모두 군사훈련을 완수한 학생들이다. 이처럼 일차적으로 군사훈련을 완수한 학생들만 입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료한 학생들이 추가로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매년 약 1~2% 정도 된다.²⁾ 일반대학교는 ‘중도탈락률’이 약 4~5%인 것을 고려했을 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1, p.89)³⁾ 공군사관학교의 ‘중도탈락률’은 낮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중도탈락률’을 보면, ‘자퇴’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21년 교육통계 고등교육통계편」에서는 ‘중도탈락률’ 중 ‘자퇴율’을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대학교의 ‘자퇴율’은 알 수 없지만, 공군사관학교의 경우 ‘중도탈

- 2) 최근 4년간 공군사관학교 ‘중도탈락’ 인원 (2021년 7월까지, 강대식 국방위원실 제공) <표 1>의 감소 인원과 차이가 있는 이유는 임시입교 시 포기한 경우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휴학한 학생 등이 있기 때문이다. 받은 자료에 자퇴 사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원에 의한 퇴학(자퇴)	원에 의한 퇴학(자퇴)	원에 의한 퇴학(자퇴)	원에 의한 퇴학(자퇴)
1학년	5명	7명	10명	8명
2학년	2명	4명	2명	1명
3학년	2명	0명	0명	2명
4학년	1명	0명	1명	1명
계	10명	11명	13명	12명

- 3) “중도탈락자는 제적 학생을 의미하며, 미등록, 미복학, 자퇴, 학사경고, 유급, 수업연한초과, 기타사유 등에 의해 학적에서 제외된 학생을 말함”

락자' 중 대부분이 “원에 의한 퇴학”(이하 자퇴)이다. 또한 이 ‘자퇴자’는 대부분 1학년 학생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학생들이 1학년 시기에 가장 많이 중도탈락을 고민한다는 연구(한송이, 2018)와 비슷한 맥락일 수 있으나, 사관학교는 임시입교라는 특수한 입학 조건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입학 이후 ‘중도탈락’이 발생한다는 점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출산을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및 병역의무자 감소와 맞물려 최근 증가하는 사관학교 학생들의 중도탈락 현상이 국방력 감소와 안보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진행되었다. 중도탈락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김성식, 2008; 김수연, 2012; 김현숙, 2021; 박은선·김광현, 2016 등)이 가정, 고등학교 단계, 입학 후 대인관계, 대학 교육 등 여러 변인을 통해 중도탈락을 분석하였지만, 기숙 생활이나 계급 관계 등에 관한 변인이 없었다는 점 또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사관학교 중도탈락 학생이 대부분 1학년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공군사관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하지만 중도탈락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퇴한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하는데, 이는 자료수집의 어려움이 있다. 사관학교의 계급체계와 중도탈락을 희망하는 학생이 1학년이라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중도탈락에 관해 묻는 설문 혹은 심층 면접이 학생에게 자퇴를 막는 외압과도 같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도탈락자를 제외하고 재학 중인 1학년 학생들의 중도탈락 의도를 조사하고 배경 요인, 대학경험 요인, 조직몰입 요인, 관계 요인 등 4개 주요 요인들이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도탈락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각 변인을 배경 변인, 대학경험 변인, 조직몰입 요인, 관계 변인으로 나누어 영향 관계를 파악할 것이다. 이 변인들의 영향도를 파악하여, 추후 사관학교 중도탈락이 감소할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토대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첫 번째로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주는 배경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경험, 조직몰입, 관계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세 번째로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한지 살펴볼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중도탈락의도 정의

본 연구에서는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의하기에 앞서, ‘중도탈락의도’의 기본 바탕이 되는 ‘중도탈락’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중도탈락’의 개념적 정의를 탐색한 후 ‘중도탈락의도’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중도탈락’과 ‘중도탈락의도’가 분리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는 중도탈락에 대한 연구동향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은화와 강승희(2019)의 연구는 중도탈락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조사하였는데, 총 71편의 논문 중 연구대상자별로 연구 수를 확인하면 중도탈락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3편(18.3%), 중도탈락의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37편(52.1%), 중도탈락자+중도탈락의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14편(19.7%), 대학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 7편(9.9%)이었다. 이처럼 ‘중도탈락’과 ‘중도탈락의도’는 구분되기보다 함께 연구된 경우가 많았다.

‘중도탈락’은 국내에서 ‘학업포기’, ‘중도탈락’, ‘학생 이탈’, ‘학업 중단’ 등 다양한 용어로 연구되었다. 다양한 용어만큼 ‘중도탈락’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태화(2002)는 ‘학업포기’와 ‘중도탈락’ 그리고 ‘학생이탈’을 구별하는데, ‘학업포기’는 대학 재학 중에 학생이 개인적인 이유나 대학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로, ‘중도탈락’은 학생이 학교를 떠난 뒤 정해진 수학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로, ‘학생이탈’은 ‘중도탈락’과 ‘학생이탈’을 포괄하는 넓은 범주로 정의하였다. 김수연(2006)은 군 휴학을 제외한 휴학, 퇴학, 제적을 ‘중도탈락’으로 보고 있고, 김성식(2008)은 ‘중도탈락’ 대신 ‘학업 중단’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학업 중단’을 학생이 일시적으로 소속 학교가 없는 상태로 정의한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중도탈락’을 이동의 과정을 포함하여 입학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정의한다.

한편 이를 바탕으로 ‘중도탈락의도’를 정의한 선행연구들은 ‘중도탈락 생각’, ‘학업중단 의도’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강승호(2010)는 학업을 중단할 생각이 한 번 이상 있었던 경우를 ‘중도탈락 생각’으로 규정하였다. 박은주와 이해경(2016)은 ‘학업중단 의도’라고 명명하여, 당해 스스로 자퇴할 의향으로 정의하였다. ‘중도탈락의도’는 다양한 정의가 있는 ‘중도탈락’과는 다르게 공통적으로 학생이 고등교육기관을 나가고자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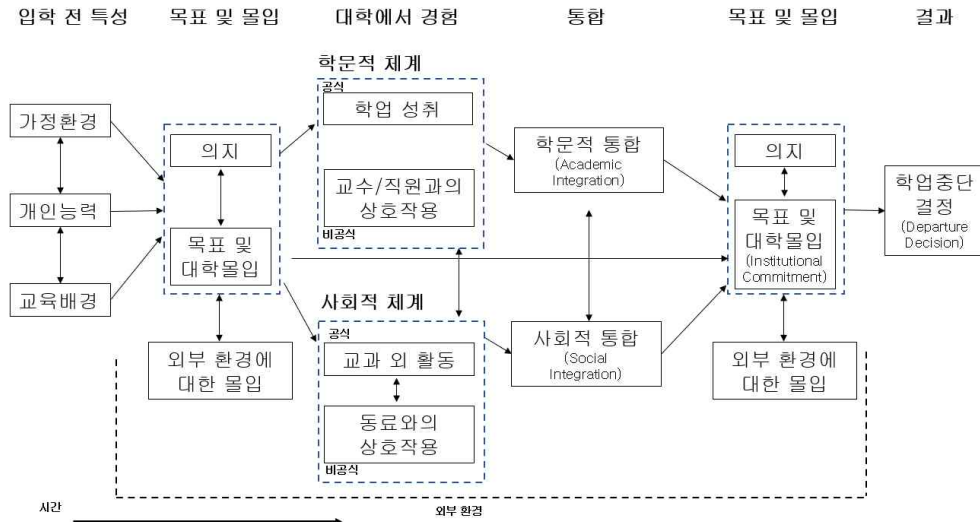
의도를 가진 경우로 정의된다.

선행연구의 경우 ‘중도탈락’이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등장하는데, 이는 ‘중도탈락’을 자퇴·휴학·편입·학교 이동 등 세부적 이탈 이유에 따라 정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 대상을 전체 학년으로 규정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공군사관학교 1학년 학생이며, 이 학생들은 2학년 수료(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편입’이 불가능한 조건을 갖고 있으며, ‘휴학’ 또한 사관학교 규정상 건강 혹은 법적 처벌의 사유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하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경우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중도탈락’을 정의를 ‘자퇴’로 범위를 좁힐 수 있다. 본 연구는 ‘중도탈락’을 사관학교에서 자퇴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중도탈락의도’를 사관학교에서 자퇴하고자 하는 의도로 정의한다.

2. 중도탈락의도 요인의 이론적 배경

중도탈락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미국에서부터 이루어졌다. 미국도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과 유사하게 대학에 입학할 학생이 부족해지면서 중도탈락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대표적인 미국의 연구 결과로는 Spady(1970), Tinto(1975), Pascarella(1980) 등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학생의 인구동태학적 변인”과 “대학 변인” 그리고 “학생과 대학 간의 상호작용 변인”이다(정태화, 2002, pp. 336). Spady(1970)의 연구모형을 발전시켜 대학 중도탈락을 연구한 Tinto(1975)는 대학 중도탈락을 학생과 대학 그리고 사회의 상호작용 결과로 보았다. 이는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대략 설명하면, 대학입학 전 개인의 특성(인구학적 요인)이 초기 대학몰입(commitment)을 형성한다. 여기서 대학몰입이란 대학을 졸업하고자 하는 목표로 요약할 수 있다. 대학에 입학 후 형성되는 대학몰입은 성적 및 졸업에 대한 욕구(학업적 통합, academic integration)와 대학 내에서 경험하는 동료 및 교수의 상호작용(사회적 통합, social integration)의 영향을 받는다. 학업적 통합은 학생이 대학 교육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의미하고, 사회적 통합은 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경험과 참여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한다. 이처럼 Tinto는 학생이 대학에서 경험하는 학업 및 사회(관계)적 만족감이 대학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Tinto(1975)는 이 모형을 수정하여 대학 외적 요인(가족, 직장 등)을 추가한 모형(Tinto, 1993, pp. 114)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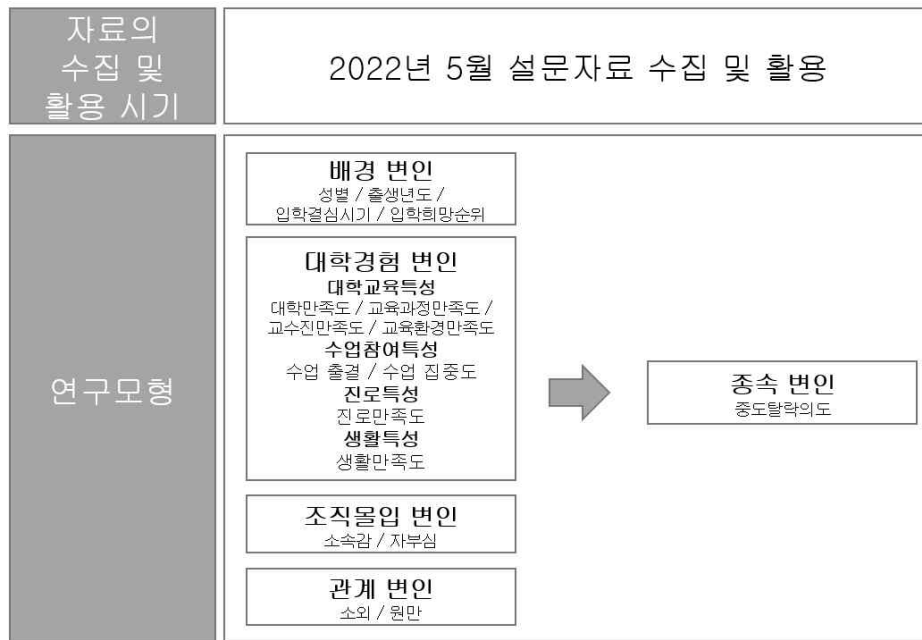
공군사관학교 1학년 학생의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그림 1> Tinto의 학업 종단의 종단적 모델 2
(A longitudinal model of institutional departure)

Tinto(1993)는 위와 같은 모델을 바탕으로 초기에 형성된 ‘대학몰입’이 후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연구들에 의해 초기 대학몰입과 후기 대학몰입의 정적 영향이 확인되었고(Braxton et al., 1997, 2000), 학업적 통합과 대학몰입 간의 정적 영향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학업적 통합 외의 대학 환경, 학생 집단, 사회적 통합 요인은 대학몰입 및 대학교육 성과요인에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Cabrera, Nora, & Castaneda, 1993; Pascarella & Chapman, 1983; Strauss & Volkwein, 2004). 한편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인 최정윤과 신혜숙(2016)의 연구는 Tinto의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의 세 시점 자료(대학입학 이전, 대학입학 초기, 대학 3학년 등)를 활용했다. 연구 결과는 Tinto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한 선행연구들과 대부분 일치하였으며, 초기 대학몰입이 후기 대학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학업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을 통한 간접적 효과만이 발견할 수 있었다(최정윤·신혜숙, 2016).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 1학년 학생들의 중도탈락 결과는 초기 ‘대학몰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중도탈락 현상뿐만 아니라, Tinto의 모델과 Tinto의 모델을 검증한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공군사관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도탈락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설명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진행된 본 연구의 자료수집 과정 및 연구

모형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3. 중도탈락의도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는 ‘대학몰입’이라는 개념을 통해 대학 중도탈락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 Tinto의 모델과 선행연구들이 중도탈락 및 중도탈락의도를 검증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군사관학교 1학년 학생들의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Tinto가 제시한 모델은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데, 이는 집단생활을 기본으로 하는 사관학교를 분석하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집단생활의 구체적 예로 반별 수업, 중대별 훈련, 선·후배 위계, 기숙사 생활, 중대장, 지도교수 등이 있다. 하지만 Tinto의 모델은 대학의 특성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학의 특성과 사관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요인들을 추가하여 본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가. 배경 요인

Tinto(1992)의 모델에서 활용된 입학 전 특성은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는 인구학적 요인 또는 배경적 요인 등으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는 성별, 경제적 여건, 거주지역, 나이 등을 의미한다. 대학 중도탈락 요인 중 배경적 요인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성별, 가정의 경제적 여건 등에 주목한다. 상당수의 연구가 성별 요인의 차이를 발견하였는데, 남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주였으며(김성식, 2008; 김수연, 2006), 가정의 소득이 높고 부모의 관여가 높을수록 초기 중도탈락의도가 낮다는 결론도 있었다(강명희·이은경·이웅택, 2019). 이 같은 결과를 참고하여 공군사관학교에 맞는 변인을 수정 및 추가하고자 한다. 공군사관학교의 경우, 일반대학과 입학 절차가 다르므로 입학 준비 또한 일반대학과 다르다. 학업능력을 평가하는 1차 시험과 신체능력 및 국가·안보관을 평가하는 2차 시험 등이 있다. 이와 같은 1·2차 시험은 단기간에 준비할 수 없으므로, 대학입학 전, 사관학교 입학 결심 시기와 입학 희망 순위가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하였다. 고등학교 시기의 변인을 살펴본 김현숙(2021)은 중도탈락의도형보다 학업지속가능형 집단이 학교 만족도, 교사 관계 적응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처럼 사관학교 입학 전, ‘입학 결심 시기’와 ‘입학 희망 순위’가 중도탈락의도와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학 결심 시기’와 ‘입학 희망 순위’를 관련 변인으로 추가하였다.

나. 대학경험 요인

앞서 Tinto(1992)의 모델을 증명한 선행연구를 통해 학생이 대학에 입학한 이후,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학적 요인이 대학몰입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규명되었다. 대학적 요인은 크게 대학기관 요인과 대학경험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학기관 요인은 대학의 종류, 대학의 소재지,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 대학 재정 상황, 대학 졸업생 취업률 등을 포함한다. 대학기관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높은 학생 1인당 교육비와 기숙사 수용률이 높을수록 학생의 중도탈락률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정제영·선미숙·정민지, 2015).

본 연구는 공군사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대학의 기관 요인을 제외하고, 사관학교에 입학한 이후 경험할 수 있는 대학경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대학경험 요인은 학생이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와 학생과 교수 및 학생들 간의 관계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선행연구에

서는 수업의 질이 대학의 충성도에 직·간접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정한호, 2018). 학생과 교수 간의 상호작용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학생들의 중도탈락 가능성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연, 2007; 남민우·이해듬·백은주, 2016; 노혜란·최미나, 2008). 한편 박경호(2019)는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빈번한 경우 중도탈락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제시하지만, 이 같은 결론은 자퇴의 행정적 절차가 영향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관학교도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지도교수와 중대장의 면담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박경호의 연구 결과는 자퇴 절차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수와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동료 간의 상호작용 또한 입학 이후 경험할 수 있는 영역에 포함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 간의 관계 요인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선행연구들이 주목한 요인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살펴볼 대학 경험 요인은 대학 교육의 특성, 수업 참여 특성, 진로 특성, 생활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대학 교육의 특성은 사관학교·교육·교수진·교육 서비스의 만족도와 같은 교육의 질로 구성되었다. 수업 참여 특성은 학생의 출결과 참여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진로 특성은 사관학교 진로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되었으며, 생활 특성은 사관학교의 특수한 생활 환경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일반대학과 다르게 공군사관학교는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군사훈련을 병행하기 때문에 군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 그 구성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전대-대대-중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대대와 2대대 아래 각각 1~4중대와 5~8중대로 구성되어 있다. 중대의 인원은 각 학년이 고르게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학년의 구성원들은 기숙사에 머물며 대부분 2인 1실로 생활한다. 따라서 사관학교 특성인 집단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중도탈락의도와 영향에 살펴보기 위해 ‘생활 만족도’라는 요인을 추가하였다.

다. 조직몰입 요인

Tinto의 모델에선 ‘사회적 통합’ 안에 학생의 소속감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공군사관학교가 군사훈련을 수행하여 장교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양면적 특성을 갖는 점을 고려하여, ‘조직몰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조직몰입’은 구성원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감을 느끼고, 조직의 지향점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O'Reilly, 1989). 조직몰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서적 몰입으로서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애착심, 충성심, 호의, 소속감, 행복감 등 정서적으로 조직에 대해 애착을 갖는 정도를 말하며, 두 번째는 규범적 몰입으로 조직 목표에 대해 내면화를 통하여 심리적 애착을 가지는 정도, 셋째는 경제적 측면으로, 지속적 몰입으로 조직에 잔류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조직을 떠남으로써 잃는 손실을 고려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Meyer & Allen, 1990; 김현섭, 2013에서 재인용). 이를 종합하여 보면, 조직몰입은 직원이 조직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심리 및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다(박혜선·이정현, 2020).

조직몰입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이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용구·윤선영, 2009; 전기석·최순원, 2020; 정윤식·정효선·윤혜현, 2020). 특히 군 조직을 대상으로 조직문화와 몰입효과를 연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혁신문화, 관계문화, 위계문화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김현섭, 2013). 공군 조종특기 장기복무 장교를 대상으로 한 소명의식과 조직몰입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도 소명의식이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함성수·하유진·손영우, 2019). 본 연구에서는 함성수 등(2019)이 사용한 조직몰입 정의 및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조직몰입이 사관학교 학생들의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고, 조직몰입을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별하였다.

라. 관계 요인

Tinto의 모델에 따르면, ‘사회적 통합’은 대학몰입을 형성하고, 그 결과 대학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도탈락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변인을 따로 설정하였다. 특히 사관학교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선·후배 사이의 훈육 및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상당 시간을 기숙사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동료와 보내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일반대학에서도 동료 간의 상호작용을 주목한 연구들이 많이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또한 동기 및 선·후배 간의 상호작용 또한 중도탈락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모두 존재한다.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빈번한 집단의 경우, 상호작용이 없는 집단보다 중도탈락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최길순·함순례, 2010; 한송이, 2018)과 유의한 영향이 없다는 연구 결과(김경희, 2011; 김성식, 2008)가 모두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추가적인 규명이 필요하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2년 입학한 공군사관학교 1학년 학생을 모집단으로 중도탈락의도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조사는 군 내의 코로나 지침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2022년 5월 한 달간 실시한 설문에는 189명의 학생 중 126명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연구자의 계급적 위계가 작용하지 않도록 설문지 링크는 학년 대표가 학생들에게 배포하였다. 계급체제로 이루어진 특수한 환경적 요인이 설문 응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강제성이 없음을 사전에 공지하였으며,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다. 일부 누락된 정보를 제공한 1명의 학생과 종속변인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22명의 학생을 제외하고 총 103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2. 측정 도구

이 설문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2021 한국교육종단연구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IX): 조사개요보고서』에 수록된 대학생 설문지를 공군사관학교의 환경에 맞춰 일부 수정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일반대학과는 다르게 전원 기숙사에 거주하며, 집단 생활, 군사훈련, 계급체계 등 일반대학과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려를 반영했다.

가. 종속 변인

본 연구에서의 중도탈락의도는 종속 변인으로 사관학교 입학 후 학생들이 재학 중인 사관학교에서 퇴교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중도탈락의도로 개념적으로 정의하였다. 실시한 설문 문항 중 ‘사관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를 묻는 문항으로 ‘그렇다’(4)부터 ‘매우 그렇다’(5)를 중도탈락의도가 있음(=1)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와 ‘그렇지 않다’(2)를 중도탈락의도가 없음(=0)으로 분류하여 정의하였다. 연구의 객관화를 위해, 중립적인 응답을 한 ‘보통이다(3)’를 제거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나. 독립변인

1) 배경 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 중 배경 변인은 성별, 출생 연도, 입학 결심 시기, 입학 희망 순위로 구성되었다. 학생의 성별은 여학생을 1로 하여 더미 변인으로 구성하였고, 출생 연도는 2000년생을 0, 2001년생을 1, 2002년생을 2, 2003년생을 3, 2004년생을 4로 구성하였고, 입학 결심 시기는 중학교 이전을 0, 중학교를 1, 고등학교 1학년을 2, 고등학교 2학년을 3, 고등학교 3학년을 4, 합격 이후를 5로 구성하였고, 입학 희망 순위는 1지망을 0, 2지망을 1, 3지망을 2, 4지망을 3, 지망 외를 4로 구성하였다.

2) 대학경험 변인

대학 변인은 대학 교육 특성, 수업 참여 특성, 진로 특성, 생활 특성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대학 교육 특성은 대학 만족도, 교육과정 만족도, 교수진 만족도, 교육 서비스 만족도로 구성되었다. 대학 만족도와 교육 서비스 만족도는 각각 단일 문항으로 '현재까지 다음 사관학교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였습니까 - 전반적인 사관학교 생활 / 전반적인 교육 서비스'로 '매우 불만족'(1)부터 '매우 만족'(5)으로 높을수록 각 항목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교육과정 만족도는 강좌 또는 교육과정 구성과 수업 방식을 묻는 총 2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응답은 '매우 불만족'(1)부터 '매우 만족'(5)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응답 또한 높을수록 교육과정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교수진 만족도는 강의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과 교수 및 강사진을 묻는 총 2문항으로 '매우 불만족'(1)부터 '매우 만족'(5)으로 높을수록 교수진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수업 참여 특성은 '현재까지 다음의 행동을 어느 정도 하였습니까'로 '전혀 하지 않는다'(1)부터 '항상 한다'(5)로 높을수록 해당 행동을 많이 했음을 의미한다. 수업 참여 특성은 수업 출결과 수업 집중도로 구성하였다. 수업 출결은 '이유 없이 수업을 빠진다. / 지각을 한다.'를 묻는 총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업 집중도는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과 잡담을 한다. / 수업시간에 몰래 음악을 듣거나 휴대폰 게임을 한다. / 수업시간에 수업과 관계없이 인터넷을 사용한다. / 수업시간에 문자를 주고받거나 채팅을 한다.'를 묻는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 활용된 대학 경험 변인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지만 수업 참여 특성의 경우 높을수록 참여가 낮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역채점을 진행하였다. 이 점수는 높을수록 수업 참여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진로 만족도는 ‘같은 입시 성적으로 현재의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에 관한 설문과 사관학교에 다니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만족’에 관한 설문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설문의 응답 또한 높을수록 진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생활 만족도는 ‘사관학교 내의 환경에 잘 맞는 것 같다. / 사관학교 생활을 잘한다. / 기숙사 생활이 잘 맞는 것 같다.’라고 묻는 총 3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로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조직몰입 변인

본 연구에서는 사관학교가 군조직의 특성 갖는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소속감과 자부심에 관한 질문을 조직몰입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조직몰입으로 구성한 설문지는 ‘중대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 사관학교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 중대에 소속감을 느낀다. / 사관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느낀다. / 중대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 사관학교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 중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 사관학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다.’라고 묻는 총 8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로 높을수록 소속감과 자부심이 높음을 의미한다.

4) 관계 변인

관계 변인은 원만과 소외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원만을 나타내는 변인은 ‘사관학교에서 원하는 만큼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사귄다. / 선·후배 관계가 원만하다. / 라인 선·후배 관계가 원만하다.’를 묻는 총 3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로 높을수록 관계가 원만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라인 선·후배는 사관학교의 문화로,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기 위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년별로 1~2명의 학생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것을 말한다. 소외특성으로는 ‘중대에서 소외되고 있다. / 동료(중대, 사관학교)학생들과 어울리기 싫다.’라고 묻는 총 2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로 높을수록 관계가 원만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 변인의 측정 방법

본 연구의 변인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방법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변인의 측정 방법

구분		요인	변인 측정 방법
종속 변인		중도탈락의도	재학희망형=0, 중도탈락의도형=1
독립 변인	배경 변인	성별	남학생 = 0, 여학생 = 1
		출생 연도	2000년 = 0 ~ 2004년 = 4
		입학 결심 시기	중학교 이전 = 0 ~ 합격 이후 = 5
		입학 희망 순위	1지망 = 0 ~ 지망 외 = 4
	대학경험 변인	대학 교육 특성	
		대학 만족도	대학 만족도 1문항 5점 척도
		교육과정 만족도	교육과정 만족도 2문항 5점 척도
		교수진 만족도	교수진 만족도 2문항 5점 척도
		교육 서비스 만족도	교육 서비스 만족도 1문항 5점 척도
		수업 참여 특성(역채점)	
		수업 출결	수업 출결 2문항 5점 척도(역채점)
		수업 집중도	수업 집중도 4문항 5점 척도(역채점)
		진로 특성	
		진로 만족도	진로 만족도 2문항 5점 척도
		생활 특성	
		생활 만족도	생활 만족도 3문항 5점 척도
	조직몰입 변인	소속감 +자부심 특성	소속감 자부심 관련 8문항 5점 척도
	관계 변인	소외특성	소외 관련 2문항 5점 척도
		원만	원만 관련 3문항 5점 척도

라. 각 변인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여러 설문 문항들을 몇 개의 요인들로 묶어 변수들의 내용을 단순화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했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고유값(Eigenvalue)을 기준으로 추출하고 요인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변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각 변인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

구분	요인	요인분석						신뢰도 Cronbach's α
		요인 적재 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 설명(%)	KMO	Bartlett 구형성 검정	
대학 경험 변인	대학교육 특성							
	대학 만족도	0.942	0.998	1.075	17.915	0.857	0.000	
	교육과정 만족도	0.811	0.910	1.588	26.459			
		0.738	0.871					
	교수진 만족도	0.869	0.928	1.820	30.336			0.888
		0.816	0.897					
	교육서비스 만족도	0.901	0.986	1.108	18.465			
	수업 참여 특성							
	수업 출결	0.900	0.815	1.661	27.686	0.651	0.000	0.699
		0.877	0.787					
	수업 집중도	0.740	0.552	2.127	35.448			0.664
		0.635	0.416					
		0.780	0.674					
		0.737	0.544					
	자부심 특성							
	진로 만족도	0.915	0.836	1.673	83.646	0.500	0.000	0.803
		0.915	0.836					
	생활 특성							
	생활 만족도	0.862	0.740	2.167	72.221	0.709	0.000	0.807
		0.860	0.743					
		0.827	0.684					

<표 4> 각 변인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

구분	요인	요인분석						신뢰도
		요인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 설명(%)	KMO	Bartlett 구형성 검정	Cronba ch α
조 직 물 입 변 인	소속감 자부심	0.814	0.663	5.492	68.654	0.873	0.000	0.933
		0.864	0.746					
		0.841	0.707					
		0.851	0.724					
		0.867	0.752					
		0.803	0.645					
		0.816	0.665					
		0.768	0.590					
관 계 변 인	소외	0.972	0.947	1.895	37.909	0.571	0.000	0.944
		0.969	0.947					
	원만	0.781	0.612	2.070	41.394			0.760
		0.896	0.807					
		0.804	0.652					

4. 자료 처리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SPSS 29.0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모든 자료는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으며, 각 변인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모든 통계의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관학교 중도탈락의도와 관련 변인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중도탈락의도 여부에 따라 배경 변인이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중도탈락의도와 재학 희망 여부에 따라 대학경험 변인, 조직몰입 및 관계 변인의 차이 검증을 위해 t-검증을 시행하였다. 셋째, 독립 변인들이 중도탈락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시사점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

가. 독립변인의 기술통계치

주요 변인들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각 변인의 기술통계치를 확인했다. 먼저 <표 5>와 같이 배경 변인의 분포 특징을 보면, 성별은 남성이 92%로 여성보다 훨씬 높으며, 출생 연도는 2003년생이 56.8%로 가장 높고, 입학 결심 시기는 중학교가 28.8%로 가장 높고, 입학 희망 순위는 1지망이 76.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분석에 포함된 배경 변인의 빈도

구분	변인	구분	인원(명)	빈도(%)
배경 변인	성별	남	96	93.2
		여	7	6.8
	출생 연도	2000	1	1.0
		2001	11	10.7
		2002	34	33.0
		2003	55	53.4
		2004	2	1.9
	입학 결심 시기	중학교 이전	12	11.7
		중학교	33	32.0
		고등학교 1학년	16	15.5
		고등학교 2학년	15	14.6
		고등학교 3학년	21	20.4
		합격 이후	6	5.8
	입학희망순위	1지망	81	78.6
		2지망	14	13.6
		3지망	5	4.9
		4지망	1	1.0
		지망 외	2	1.9

다음으로 대학경험 변인, 조직몰입, 관계 변인의 자료의 왜도와 첨도를 보면, 기술 통계치에서 자료의 왜도와 첨도에 대해 왜도의 절댓값이 3.0보다 크거나 첨도의 절댓값이 10보다 크면 정규성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Kline, 2005), <표 6>을 보면 수업출결을 제외하고 각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기준값을 넘지 않는 것을 보아 정규

공군사관학교 1학년 학생의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성 가정이 충족되었다. 수업 출결은 제거하였다.

<표 6>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인의 기술 통계자료

구분	변인	변인 항목	M	SD	왜도	첨도
대학 경험 변인	대학교육특성	대학 만족도	3.23	0.94	0.09	-0.08
		교육과정 만족도	3.73	0.81	0.15	-0.83
		교수진 만족도	3.89	0.76	0.03	-0.90
		교육서비스 만족도	3.59	1.09	-0.52	-0.24
	수업 참여 특성	수업 출결	4.80	0.39	-4.16	25.45
		수업 집중도	4.74	0.34	-1.39	1.51
	진로 특성	진로 만족도	3.35	0.79	-0.69	0.76
	생활 특성	생활 만족도	3.35	0.96	-0.21	0.05
조직 몰입 변인	소속감과 자부심	소속감 자부심	4.14	0.67	-0.43	-0.43
관계 변인	상호작용	관계의 소외	1.34	0.75	2.13	8.29
		관계의 원만	3.81	0.81	-0.55	-0.32

2. 독립 변인별 중도탈락의도 차이

가. 배경 변인에 따른 중도탈락의도 여부의 차이 분석 결과

다음으로 중도탈락의도여부에 따라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중도탈락의도여부에 따른 배경변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카이스퀘어 검정을 실시하였다. 중도탈락의도여부에 따른 배경변인의 차이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 결과, 중도탈락의도여부에 따라 출생 연도($\chi^2 = 12.362$, $p < .05$)와 입학희망순위($\chi^2 = 12.587$, $p < .05$)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2000년 출생자에서 2003년 출생자 순으로 중도탈락의도의 비율이 높고 입학희망순위에서는 1지망으로 희망한 학생들이 중도탈락의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배경변인에 따른 중도탈락의도 여부의 차이검증

구분	변인		재학희망형 (N=94)	중도탈락 의도형 (N=9)	χ^2	p
배경변인	성별	남자	87(84.5%)	9(8.7%)	0.719	0.396
		여자	7(6.8%)	0(0.0%)		
	출생 연도	2000	0(0.0%)	1(1.0%)	12.362	0.015
		2001	9(8.7%)	2(1.9%)		
		2002	32(31.1%)	2(1.9%)		
		2003	51(49.5%)	4(3.9%)		
		2004	2(1.9%)	0(0.0%)		
	입학결심시기	중학교 이전	9(8.7%)	3(2.9%)	10.135	0.072
		중학교	32(31.1%)	1(1.0%)		
		고1	16(15.5%)	0(0.0%)		
		고2	12(11.7%)	3(2.9%)		
		고3	20(19.4%)	1(1.0%)		
		합격이후	5(4.9%)	1(1.0%)		
	입학희망순위	1지망	73(70.9%)	8(7.8%)	12.587	0.013
		2지망	14(13.6%)	0(0.0%)		
		3지망	5(4.9%)	0(0.0%)		
		4지망	0(0.0%)	1(1.0%)		
		지망 외	2(1.9%)	0(0.0%)		

나. 중도탈락의도여부에 따른 중도탈락의도 차이 분석 결과 : 대학경험 변인, 조직몰입 변인, 관계 변인

사관학교 중도탈락의도 여부에 따른 독립 변인들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변인들에 대한 중도탈락의도 여부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 따르면, 중도탈락의도 여부에 따라 대학경험 변인에서는 중도탈락희망형의 교육서비스($t=-2.06$, $p=0.04$)가 재학희망형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으며, 진로 만족도($t=-3.81$, $p<0.001$), 생활 만족도($t=-2.68$, $p=0.01$)도 역시 중도탈락희망형이 재학희망형에 비해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독립변인 중 관계 변인에서 원만($t=-2.95$, $p<0.001$) 역시 중도탈락희망형이 재학희망형에 비해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변인에서 소외($t=8.96$, $p<0.001$)는 중도탈락희망형이 재학희망형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중도탈락의도 여부에 따른 대학경험변인, 조직몰입, 관계변인 차이검증

구분	변인		재학희망형	중도탈락 희망형	t	p
대학 경험 변인	대학교육 특성	대학만족도	3.27±0.83	2.89±1.76	-1.15	0.25
		교육과정	3.72±0.79	3.78±1.06	0.19	0.85
		교수진	3.90±0.73	3.78±1.06	-0.45	0.65
		교육서비스	3.66±0.98	2.89±1.83	-2.06	0.04
	수업참여 특성	수업 집중도	4.75±0.33	4.64±0.45	-0.91	0.37
	진로특성	진로만족도	3.44±0.64	2.44±1.51	-3.81	0.00
	생활특성	생활만족도	3.43±0.84	2.56±1.67	-2.68	0.01
조직 몰입		소속감 자부심	4.14±0.68	4.15±0.62	0.04	0.97
관계 변인		관계의 소외	1.18±0.45	2.94±1.26	8.96	0.00
		관계의 원만	3.88±0.75	3.07±1.12	-2.95	0.00

4. 중도탈락의도 여부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

가. 독립 변인 간의 상관계수

배경변인별 중도탈락의도 여부차이와 중도탈락여부에 따른 각 변인들의 차이에 대한 결과 중 유의미한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001~.80 범위로 분포하고 있어 회귀분석을 위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다(서혜선·양경숙·김나영·김희영·김미경, 2011).

나. 중도탈락의도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모형 분석결과

앞서 중도탈락의도 여부에 따른 차이분석을 참고하여 유의미한 변인들에 대해 중도탈락의도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모형의 적합성에 서, 모형1 카이제곱은 4.12(p=0.04), 모형2의 카이제곱은 28.84(p<0.001), 모형3의 카이제곱은 31.80(p<0.001), 모형4의 카이제곱은 31.96(p<0.001), 모형5의 카이제곱은 58.77(p<0.001), 모형6의 카이제곱은 63.91(p<0.001)로, 각각의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중도탈락의도 여부에 관한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출생 연도	-							
입학희망 순위	0.14	-						
교육 서비스	- 0.04	0.01	-					
진로 만족도	- 0.05	- 0.23**	0.42**	-				
생활 만족도	- 0.01	0.01	0.34**	0.69**	-			
조직몰입	0.06	0.01	0.32**	0.61**	0.66**	-		
관계의 소외	- 0.26**	- 0.03	0.08	- 0.02	- 0.09	- 0.15	-	
관계의 원만	0.01	0.01	0.21*	0.55**	0.75**	0.59**	- 0.13	-

*p<.05, **p<.01, ***p<.001

교육서비스를 투입한 모형1에서는 유의성이 나타났다(Wald=4.05, $p<0.05$). 진로 만족도를 투입한 모형2에서는 진로 만족도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Wald=18.32, $p<0.001$). 생활 만족도를 투입한 모형3에서도 진로 만족도만 유의하였다(Wald=8.45, $p<0.01$). 소속감, 자부심을 투입한 모형4에서도 진로 만족도만 유의하였다(Wald=7.52, $p<0.01$). 관계의 소외를 투입한 모형5에서는 진로 만족도(Wald=10.59, $p<0.01$), 관계의 소외(Wald=19.80, $p<0.0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끝으로 관계의 원만을 투입한 모형6에서는 진로 만족도(Wald=11.96, $p<0.01$)와 생활 만족도(Wald=6.35, $p<0.05$), 관계의 소외(Wald=21.04, $p<0.001$)가 유의하였다. 모형6을 기준으로 다른 독립 변인들의 값이 동일하다고 할 때 각 독립변인에서 1점 높은 점수를 받은 생도는 중도탈락희망형에 속할 확률이 재학희망형에 속할 확률보다 관계의 소외에서 6.90배 높아지고 진로 만족도에서 0.12배, 생활 만족도에서 0.19배 감소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R^2 변화량은 진로 만족도가 추가되는 모형2부터 31%로 그 이전 단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또 관계의 소외가 추가되는 모형5부터 56%로 그 이전 단계보다 큰폭으로 증가하여 대학 경험 변인 중 진로, 생활 특성과 관계변인이 다른 변인보다 큰 설명력을 보였다.

<표 10> 중도탈락의도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모형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i>B</i> (<i>S.E.</i>)	<i>Wald</i>	<i>Exp</i> (<i>B</i>)	<i>B</i> (<i>S.E.</i>)	<i>Wald</i>	<i>Exp</i> (<i>B</i>)	<i>B</i> (<i>S.E.</i>)	<i>Wald</i>	<i>Exp</i> (<i>B</i>)
교육서비스	-0.38 (0.18)	4.05*	0.68	0.07 (0.23)	0.10	1.07	0.08 (0.24)	0.12	1.09
진로만족도				-1.64 (0.23)	18.32***	0.20	-1.26 (0.44)	8.45**	0.28
생활만족도							-0.68 (0.40)	2.91	0.50
조직몰입									
관계의 소외									
관계의 원만									
상수	0.19 (0.66)	0.09	0.77	3.58 (1.13)	10.09**	35.80	4.64 (1.37)	11.57**	103.77
	$-2LL = 135.91$ $Model \chi^2 = 4.12 (p = 0.04)$ Hosmer-Lemeshow $\chi^2 = 9.43 (df = 2, p = 0.01)$ Nagelkerke $R^2 = 0.05$			$-2LL = 111.20$ $Model \chi^2 = 28.84 (p < .001)$ Hosmer-Lemeshow $\chi^2 = 12.65 (df = 7, p = 0.08)$ Nagelkerke $R^2 = 0.31$			$-2LL = 108.23$ $Model \chi^2 = 31.80 (p < .001)$ Hosmer-Lemeshow $\chi^2 = 20.74 (df = 7, p = .01)$ Nagelkerke $R^2 = 0.33$		
구분	모형4			모형5			모형6		
	<i>B</i> (<i>S.E.</i>)	<i>Wald</i>	<i>Exp</i> (<i>B</i>)	<i>B</i> (<i>S.E.</i>)	<i>Wald</i>	<i>Exp</i> (<i>B</i>)	<i>B</i> (<i>S.E.</i>)	<i>Wald</i>	<i>Exp</i> (<i>B</i>)
교육서비스	0.89 (0.24)	0.14	1.09	-0.14 (0.28)	0.25	0.87	-0.06 (0.30)	0.04	0.94
진로만족도	-1.22 (0.45)	7.52**	0.29	-1.80 (0.55)	10.59**	0.17	-2.11 (0.61)	11.96**	0.12
생활만족도	-0.61 (0.44)	1.92	0.54	-0.85 (0.53)	2.59	0.43	-1.64 (0.65)	6.35*	0.19
조직몰입	-0.17 (0.42)	0.16	0.84	0.11 (0.49)	0.05	1.11	-0.08 (0.50)	0.03	0.92
관계의 소외				1.74 (0.39)	19.80***	5.67	1.93 (0.42)	21.04***	6.90
관계의 원만							1.27 (0.59)	4.68	3.58
상수	4.92 (1.53)	10.30**	136.34	4.57 (1.93)	5.58*	96.09	3.48 (2.07)	2.83	32.58
	$-2LL = 108.07$ $Model \chi^2 = 31.96 (p < .001)$ Hosmer-Lemeshow $\chi^2 = 21.42 (df = 8, p = .01)$ Nagelkerke $R^2 = 0.34$			$-2LL = 81.26$ $Model \chi^2 = 58.77 (p < .001)$ Hosmer-Lemeshow $\chi^2 = 13.01 (df = 8, p = .112)$ Nagelkerke $R^2 = 0.56$			$-2LL = 76.12$ $Model \chi^2 = 63.91 (p < .001)$ Hosmer-Lemeshow $\chi^2 = 6.08 (df = 8, p = .638)$ Nagelkerke $R^2 = 0.59$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21 한국교육연구 한국교육중단연구2013(IX): 조사개요보고서』에 수록된 대학생 설문지를 일부 공군사관학교의 환경에 맞게 변용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2022년 5월 한 달간 공군사관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조사에서 189명의 학생 중 126명의 학생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누락된 정보를 제공한 1명의 학생과 중도탈락의도에 대해 독립적 생각을 보인 22명의 설문을 제외하고 총 103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 중 배경 변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중도탈락의도 여부에 따른 배경 변인 차이 결과에서 ‘성별’과 ‘입학 결심 시기’는 통계적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중도탈락률이 낮다는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강명희 등, 2019; 김성식, 2008; 김현숙, 2021; 허영주, 2019). 이는 응답한 여학생이 10명이라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관학교의 여학생 모집인원이 10~15%인 것을 고려한다면, 유의미한 표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배경 변인들의 경우 ‘출생연도, 입학 희망 순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출생연도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중도탈락의도가 줄어들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Tinto가 설명한 학생의 목표와 의지에 기인한 초기 대학몰입과 관련이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사관학교 입학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반면 입학 희망 순위의 경우, 공군사관학교 입학을 1지망으로 희망했을 경우 중도탈락의도가 더 높았다. 이는 Tinto의 모델에서 입학 전 특성으로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공군사관학교를 1지망으로 희망하였던 학생들의 중도탈락의도가 더 높은 것은 입학 전 특성이 대학입학 후 경험으로 인해 변화한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다. Tinto의 용어를 사용하면, 이는 초기 대학몰입이 실패한 경우이다. 이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중도탈락희망과 재학희망 집단에 따른 대학경험 변인, 조직몰입 변인, 관계 변인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대학경험 변인 중에서는 재학희망형 집단에서 교육서비스 만족도와 진로 만족도, 생활 만족도가 중도탈락의도형 집단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활 만족도(김성식, 2008; 김수연, 2007, 남민우 등, 2016; 이현주, 2021)가 높을수록 중도탈락 가능성이 작다는 것은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 그리고 재학희망형 집단에서 관계의 원만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중도

탈락희망형 집단에서는 관계의 소외가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학업 지속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김경화, 2015; 김현숙, 2021) 요인이라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세 번째로 중도탈락의도 여부에 있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해본 결과, 학생이 소외감을 느낄수록 중도탈락을 희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중도탈락의도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결과에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 유의미하게 중도탈락의도를 더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소외감의 정도에 따른 차이를 보이며, 소외감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6.9배 중도탈락의도형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 생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제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진로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중도탈락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중도탈락의도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결과에서 진로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중도탈락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진로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각각 0.12배, 0.19배 중도탈락의도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의 진로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차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사관학교의 중도탈락의도를 낮추어, 궁극적으로는 중도탈락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제언으로 글을 마치고자 한다. 1학년 학생들은 정식으로 입학하기 전에 임시입교라는 특수한 관문을 겪는다. 임시입교에서 경험하는 군사훈련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불안정성도 동반한다.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강압적인 계급체제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이와 같은 육체적·심리적 고통 속에서 군사훈련을 완수하는 것이 임시입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처럼 인식됐다. 이는 ‘군인’에 대한 편견이 만든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위성이 부여되지 않은 채, 인내를 요구하는 것은 중도탈락과 중도탈락의도를 중용할 뿐이다.

앞서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를 중도탈락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진로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진로 만족도는 입학 전 사관학교를 선택한 학생의 기대감이 경험한 이후 사관학교의 만족감과 합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입학 전 사관학교에 관한 기대 상을 파악하

고, 실제 사관학교 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조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생활 만족도는 사관학교의 기숙 생활과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다. 진로 만족도가 높을수록 중도탈락의도가 감소했다는 것으로 볼 때, 결국 집단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환경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Tinto의 모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관학교의 중도탈락의도는 초기 대학몰입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발생하는 결과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언하자면, 1학년 학생들의 중도탈락을 방지하는 방법은 본 연구에서 변인으로 측정한 ‘관계 변인’, Tinto의 모델이나 다른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로는 ‘사회적 통합’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관계 변인’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임시입교에서 발생하는 강압적인 선·후배 관계를 없애고,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소외감을 줄인다면, 1학년 사관학교의 중도탈락과 중도탈락의도는 감소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제언을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그 근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군사관학교 1학년 학생의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지만, 몇 가지 해결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공군사관학교의 중도탈락자는 임시입교를 제외하고, 학기가 시작하는 2~3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5월에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미 중도탈락한 인원의 설문 응답은 수집하지 못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도탈락자에 관한 연구가 아닌 중도탈락의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기간을 5월로 한정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것은 앞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대학경험 변인이나, 관계 변인 등 일정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측정하지 못할 변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마중물로 이후 지속해서 공군사관학교 1학년 학생의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할 것이다. 후속 연구를 통해 중도탈락의도를 낮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약하며 제언을 마친다.

< 참 고 문 헌 >

1. 강명희·이은경·이응택. (2019). “대학생의 중도탈락의도의 변화 추이와 영향 요인.” 『청소년 문화포럼』, 제58호. pp. 5-30.
2. 강승호. (2010).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중도탈락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교육평가연구』 제23권 제1호. pp. 29-53.
3.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1). “2021년 교육통계 고등교육통계편”. 한국교육개발원.
4. 김경화. (2015). “지방대학생들의 학업중단영향요인과대학현신도 분석.” 『청소년 학연구제』, 제22권 제12호 pp. 543-565.
5. 김경희 (2011). “지방대학생들의 학업중단 영향요인과 대학생활만족도 분석.” 『한국콘텐츠학 회논문지』, 제11권 제8호, pp. 378-387.
6. 김성식. (2008). “대학생들의 학업중단 및 학교이동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 교육』, 제35권 제1호, pp. 227-249.
7. 김수연. (2006). “대학생의 학업지속과 중도탈락 요인 분석.” 『한국교육』, 제33권제4호, pp. 33-62.
8. 김수연. (2007). “학생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특성 분석.” 『진로교육연구』, 제20권 제11호, pp. 111-141.
9. 김수연. (2012). “대학 중도탈락생의 이동 경로 구조 분석.” 『교육과학연구』, 제43권 제3호. pp. 131-163.
10. 김양분·임현정·신혜숙·남궁지영·양수경·이병식·임후남·최정운(2011). “한국교육중단연구 2005(VI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1. 김용구·윤선영. (2009). “여행사종사원의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21권 제1호. pp. 303-323.
12. 김현섭. (2013), “군(軍)의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 김현숙. (2021), “대학 신입생의 중도탈락의도와 고등학교 시기 및 대학 변인의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1권 제20호.
14. 남민우·이해듬·백은주. (2016). “지방대학 신입생들의 학업중단 영향요인간 구조적 관계 분석.” 『순천향인문과학논총』, 35권 제4호. pp. 147-174.
15. 노혜란·최미나. (2008). “대학생의 중도탈락 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고등교육 인

- 적자원개발·정책 방안: S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연구』, 제11권 제1호. pp. 89-107.
16. 『대구일보』. (2021.10.13.). “강대식, 육사 자퇴생 69%가 갓 입학한 1학년.”
 17. 박경호(2019). “대학생 학업중단계획과 대학 적응, 소속감의 관계 연구.” 『미래교육연구』, 9권 2호, pp. 1-20.
 18. 박경호·권희경·박근영·최인희·송승원. (2021). “2021 한국중단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 박은선·김광현. (2016). “학업중단요인 및 대학생활적응요인이 대학 신입생의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23권 제10호. pp. 361-384.
 20. 박은주·이혜경. (2016). “신입생의 학업중단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K 전문대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제46권. pp.91-111.
 21. 박혜선·이정현. (2020).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항공사 승무원의 고용불안정성이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제32권 제9호. pp. 453-472.
 22. 서혜선·양경숙·김나영·김희영·김미경(2011). 『SPSS(PASW) 회귀분석 제3판』. 서울: 한나래출판사.
 23. 이은화·강승호. (2019). “대학생 중도탈락 연구동향과 과제: 학술지 연구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9권 제10호. pp. 169 - 199.
 24. 전기석·최순원. (2020). “군 간부의 직무특성과 조직몰입의 관계: 학습민첩성의 매개효과.” 『한국군사학논집』, 제76권 제2호. pp. 99-126.
 25. 정윤식·정효선·윤혜현. (2020). “특급 호텔 종사원의 직장외로움이 조직 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조직후원인식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제34권 제12호. pp. 155-167.
 26. 정제영·선미숙·정민지. (2015).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수준 요인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제16권 제4호. pp. 57-76.
 27. 정태화. (2002). “미국에서의 전문대학 학생유지 연구에 관한 시사점 분석 재학생 감소 시기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제21권 제2호. pp. 327-342.
 28. 정한호. (2018). “대학생이 인식하는 수업의 질, 만족도, 학습동기, 충성도 간의 구조적 관계 탐색.” 『교육연구소교육문화연구』 제24권 제4호. pp. 331-358.
 29. 『중부일보』. (2020.10.15.). “[국감브리핑] 김민기 “사관학교 자진퇴교 증가 추세… 대책 절실”.”

30. 최길순·함순례. (2010). “전문대학생의 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업과 혁신연구』, 제3권 제1호. pp. 95-118.
31. 한송이. (2018). “대학생의 중도탈락 및 교육적 회복 요인 탐색.”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제18권 제24호, pp. 1369-1391.
32. 함성수·하유진·손영우. (2019). “공군 장교의 소명의식과 조직유효성과의 관계-도덕적 의무감과 조직 동일시의 매개효과와 특기집단의 조절효과 -.” 『인적자원관리연구』, 제26권 제1호. pp. 67-95.
33. 허영주. (2019). “개인요인과 대학교육요인이 대학생의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9권 제1호. pp. 503-512.
34. Braxton, J. M., Milem, J. F. & Sullivan, A. S. (2000). “The influence of active learning on the college student departure process: Toward a revision of Tinto’s theory.”.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Vol. 71 no. 5. pp. 569-590.
35. Cabrera, A. F., Nora, A. & Castaneda, M. B. (1993). “College persistence: Structural equations modeling test of an integrated model of student retention.”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Vol. 64 no. 2. pp. 123-139.
36.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37. O’Reilly, C. (1989). “Corporations, culture, and commitment: Motivation and social control in organizations.”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Vol. 31 no.4, pp. 9-25.
38. Pascarella, E. T. & Terenzini, P. T. (1980). “Predicting freshman persistence and voluntary dropout decisions from a theoretical model.”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Vol. 51 no. 1, pp. 60-75.
39. Pascarella, E. T. & Chapman, D. W. (1983). “A multiinstitutional, path analytic validation of Tinto’s model of college withdrawal.”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 20 no. 1. pp. 87 - 102.
40. Spady, W. G. (1970). Dropouts from higher education: An interdisciplinary review and synthesis. *Interchange*, Vol.1, no. 1 , pp. 64-85.
41. Strauss, L. C. & Volkwein, J. F. (2004). “Predictors of student commitment at two year and four year institutions.”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Vol. 75 no. 2. pp. 203-227.

42. Tinto, V. (1975). Dropout from higher education: A theoretical synthesis of recent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5 no. 1, pp. 89-125.
43. Tinto, V. (1987). *Leaving College: Rethinking the Causes and Cures of Student Attrition*.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44. Tinto, V. (1993). *Leaving College: Rethinking the Causes and Cures of Student Attrition (2nd Ed.)*.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원고 접수: 2022. 12. 7. / 수정 접수: 2023. 1. 26. / 게재확정: 2023. 1. 26.
--